

남원서 국악 선인의 뜻 기린다

9일 제13회 대한민국 국악대제 개최

남원시가 국악인들의 자긍심과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건립한 운봉읍의 국악의 성지에서는 오는 9일 제13회 대한민국 국악대제(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 주관으로 개최된다.



운봉읍의 국악의 성지에서는 오는 9일 제13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대제에는 기관단체장 및 국악 명인 명창 등이 대거 참석해 엄숙하고 성대한 분위기 속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악대제는 대한민국의 국악 선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명창 송홍록 선생을 비롯한 훌륭한 판소리 명창들과 명인들이 배출된 남원의 국악의 성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이날 국악대제의 사전 행사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페스티벌을 개최해 국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국악 꿈나무들의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있는 국악 축제가 될 것이다.

본 제전행사는 남원시립국악단의 보령과 정화무의 식전행사와 제1회 춘향국악대제 대상 수상자

조상현 명창이 초헌관을, 악성욱 보고 기념사업회 김무길 이사장이 아헌관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남원농악 예능보유자 류명철 명인이 종헌관을 맡아 제를 올리며, 이밖에도 많은 명창 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운봉읍에 2007년도에 개관하여 악성욱

고, 가람 송홍록, 국창 송만갑, 국창 박초월 등 49위의 국악선인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국악 관련 전시관 및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각급 학교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연중 국악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 진행

보건의료원, 리스 만들기·임산부 배려 홍보 캠페인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제14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아이 키우는 좋은 순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원은 지난 4일 해피니스 PCN센터에서 가임기 및 임산부 20여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리스 만들기'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기 화관을 만들며, 육아정보 공유 및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원은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해 '축하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며 11일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오전 10

시부터 순창읍 재래시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군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펼치는 행사 외에도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용품 마라박스제공, 산모지역, 이유식의자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율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임산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헤아림' 운영

남원시보건소 11월 26일까지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헤아림'을 운영한다.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 진행되는 '헤아림'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돌봄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주1회 총 8회가 운영되며, 치매 바로알기 및 돌보는 자세에 대해 치매전문 인력과 강사가 도예요법, 공예요법, 등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620-5493/549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임실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임실군은 금년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여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용·배수로 미 설치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38개소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추진 중이며, 농업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중·소형관개장비 20개소를 추진하는 등 총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계의 대형화에 따라 기간 진출입이 어려웠던 경지정리지구, 농로 15개소 3.5km에 대하여 3억8000만원의 투입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한 기계화영농 기반 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임실군은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2020년 인구시책 발굴 보고서

남원시는 7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부서의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2020년 인구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전북도 출생아가 1,347명 감소한 상황에서 남원시는 17명이 증가한 450명이 태어나 도내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0.071명 상승한 1.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유입 환경조성을 위해 결혼 및 출산장려, 육아지원, 전입 장려,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7개 분야 40건의 다각적인 시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초보맘 상담사 양성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문화융합 창업지원,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감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가정양육 아동에겐 간식비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일자리플랫폼 운영,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임신·출산, 양육·교육, 귀농·귀촌, 기업·일자리, 복지, 문화·교통 등 분야별 지원과 생활정보를 담은 책자 '어서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 시민과 집입자에게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최종선정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총 사업비 120억원 확보

임실군이 생활SOC복합화 국가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사탑중심)을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향후 생활SOC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발표된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과 가배분 물량에 맞춰, 임실읍사무소 신축과 함께 주거지 주차장,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를 결합한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주 1~2회씩 담당자 및 팀장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 맞춤형 시설 발굴에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20억원(국비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은 현 임실읍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59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임실읍사무소 노후화 문제, 주거지 주차장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임실읍의 오랜 현안해결과 함께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 지역 생활문화인프라 확충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내년도 생활SOC 사업 관련 국비 219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추진을 위해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임실군민체육관을 주요내용으로 지금부터 부지 선정 등 사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가 7일 제19기 출범식을 가졌다.

제19기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에 운영식 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운영식,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가 7일 제19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도 직접 참석해 신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에 위촉장 수여,

협의회장들의 이.취임사, 제19기 협의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임 운영식 회장을 비롯해 총 29명의 자문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갖고 2021년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OL CHEESE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